

# MOVE BY STORY VOL. 02

20121220

당신을 흔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프라이프 ©



# INDEX

- COVER STORY** 낭만이라는 이름의 이야기
-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여행 친구 - 개그콘서트 희극여배우들 정경미·박지선·이희경·김영희
-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주인이 아닌 길손으로 잠시 머물다
- MUSE** 기억을 머금은 향기를 읽다 - 향기도서관 DEMETER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 MOVE by STORY VOL.02

-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 발행일** 2012년 12월 20일
- 발행인** 김상아
-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예니, 김보미
- 디자인·일러스트** 김광혁(R2D2)
- 사진촬영** 김윤태, 김종욱

-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http://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http://www.facebook.com/r2d2visual)

###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2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랭스북스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갤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 낭만이라는 이름의 이야기

스토리텔러 선민정 — haneul@bombaram.net

MOVE by STORY 두번째 이야기는 낭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학창시절의 낭만, 캠퍼스의 낭만, 첫사랑의 낭만... 등 많은 수식어를 붙여 낭만이라 부르고 추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낭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에 상상이 덧씌워져

사물이나 장소, 과거의 시간 또는 미래를 상기하는 불명확한 감정.

낭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팀 버튼 감독, 피카소 등과 같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가진 예술가들도 어린 시절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흥내내지도 범접할 수도 없는 개인의 경험은 독특한 이야기와 세계를 창조합니다. 어릴적 경험이 이런 창조를 야기시킬진데, 특히나 좋았던 경험과 기억에 상상까지 결합되는 낭만은 더없이 좋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낭만은 불명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이 보태어져 나오는 나의 감정을 타인이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사실이나 논리에 근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불명확한 감정을 그저 내 식대로 느끼면 됩니다. 그 느낌이 좋아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다면 가슴 한 켠으로 그리면 되고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면 쓰거나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낭만이라는 감정도 쓰고, 읽고, 말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은 '낭만'이라 부르는

어떤 '나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Move with MOVE by STORY



# 손미나의 여행 사전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스토리텔러 김예니 — nabi@bombaram.net

넓은 여관의 허름한 창틀에도, 거리 악사의 동전 바꾸니, 작은 벽돌, 길바닥에도 근사한 추억과 이야기들이 쌓이고 넘치는 곳. 바쁜 일상 속 나와는 먼 이야기 같았던 낭만과 로맨스가 숨쉬는 체코 프라하. 한국의 시인 고은은 이 도시가 간직한 애뜻함을 가득 담아 이렇게 예찬했다.

여기에 온다는 것은 한 번 이상 온다는 것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일 년 더 머문다는 것

세상의 도시들은 날마다 부풀어간다  
여기는 그럴 수 없는 곳  
오래오래 저 스스로 피어나는  
지상의 꽃

미움이 미움 이전으로 돌아가는 곳  
나의 프라하 — 고은 〈나의 프라하〉

프라하에서 그 누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프라하 골목의 벽돌길을 똑각똑각 걷는 것을 상상하며 다섯 가지 매력포인트를 음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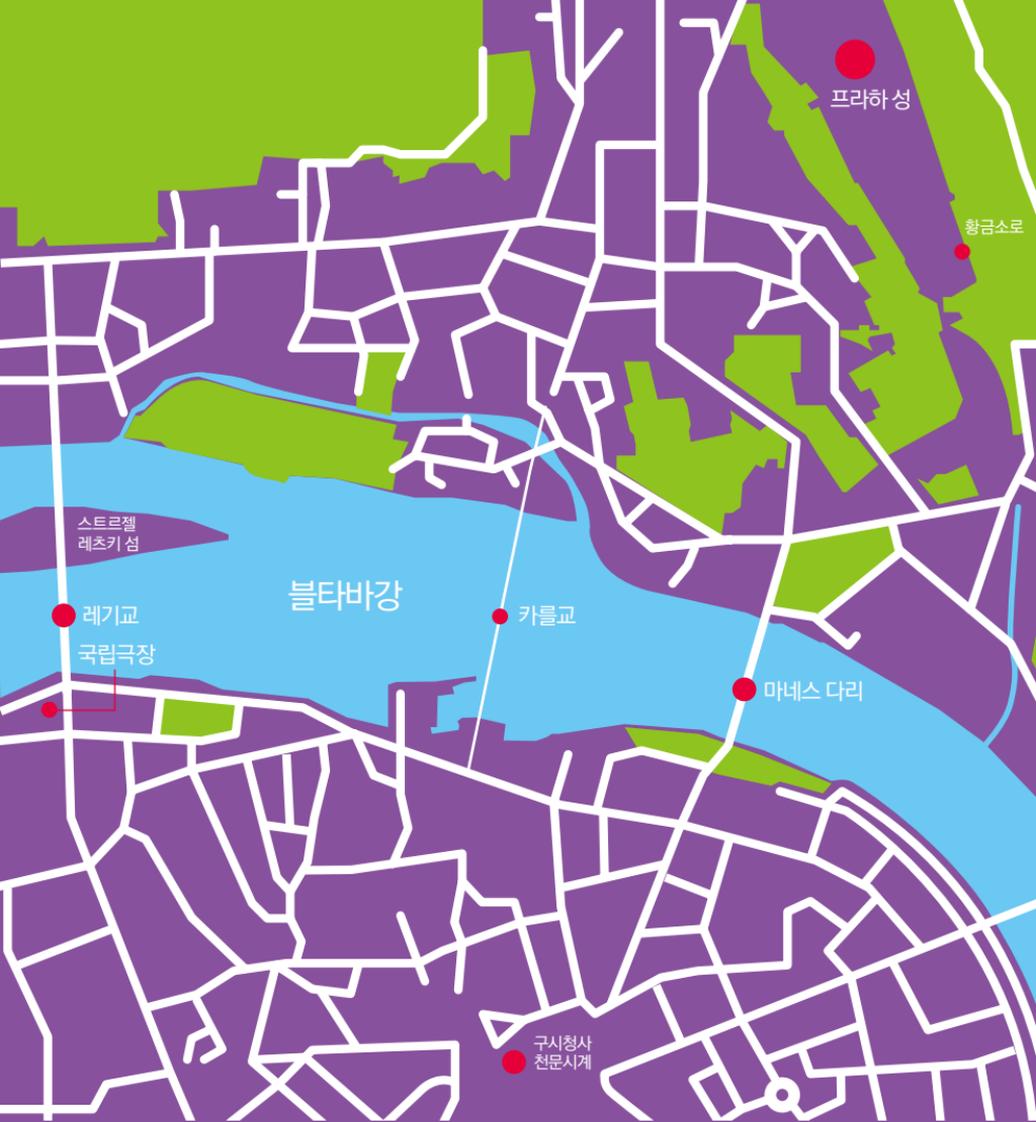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ang.com>



프라하 여행의 중심인 카를교를 건너는 방향에 따라 프라하 구시가 광장은 물론 프라하 성까지 닿을 수 있다.

## 프라하의 매력포인트 1. 트램

트램이 있는 도시는 많지만 프라하만큼 트램이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빨갛고, 하얗고, 귀여운 종소리가 나는 트램은 아날로그한 프라하의 풍경 속 한 부분 같다. 너무 크지도,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즐고 굽이치는 구시가지 골목에서까지 만날 수 있어 반갑다. 프라하는 서울의 종로, 광화문, 명동을 붙여 놓은 정도 크기의 작은 도시다. 트램으로 도시 몇 바퀴쯤 둘러보더라도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한 번 목적지 없이 트램을 타보기를 추천한다. 특히 프라하의 필수 코스들을 관통하는 17번, 22번 트램을 타면 동화 같은 프라하 풍경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차창 밖 풍경이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타고 내리는 다양한 체코 현지인들의 모습에서 저마다의 낭만적인 이야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프라하의 매력포인트 2. 야경

붉은 지붕과 운치있는 가로수로 가득한 프라하에 밤이 오면 도시 전체가 은은한 황금색으로 빛난다. 달빛과 가로등, 오래 되었지만 낡지 않은 중세 건축물, 시간이 켜켜이 둘러싸 울창해진 측백나무 고목 가지 가지마다 황금색이 드리우면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역사가 깨어나 생동하는 느낌이다. 밤이 되면, 보헤미안 자유 영혼들이 도시의 공기를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 길거리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빅밴드의 연주 소리, 다리 난간에 기대 서 있는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 이 모든 것이 함께 프라하의 야경을 만든다. 이러한 공기가 온전히 사진에 담길 리가 만무하다. 프라하의 야경은 오감을 열고 천천히 음미해야 한다.

### 프라하의 매력포인트 3. 체코 전통 인형극

프라하에 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뮤지컬, 연극,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와 같은 공연을 보는 것이다. 연중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최고의 극장에서 최상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보통 100코루나(한화 약 6천원 정도. 체코는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좌석 가격이 시작된다. 공연의 백미는 단연 체코 전통 인형극이다. 인형극은 인형에 줄을 연결한 마리오네트로 진행하는데 무대와 인형의 디테일, 공연 구성의 퀄리티가 매우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체코가 신성로마제국 시절에 체코어가 유일하게 허용됐던 분야가 바로 인형극이었고 이 때문에 체코인의 인형극을 향한 애정과 열정은 남다른 수밖에 없다. 인형극을 비롯한 프라하의 공연들은 보헤미안 티켓 사이트에서 모두 열람하고 예약할 수 있다.

보헤미안 티켓사이트 — <http://www.bohemiaticket.cz>





## 프라하의 매력포인트 4. 카를교

파리에는 세느강, 런던에는 템즈강, 서울에는 한강, 프라하에는 블타강이 있다. 블타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그 중 건너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다리가 바로 500m 남짓한 카를교다. 금세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30개 성인의 조각상, 거리의 악사들 공연 등 다채로운 광경 뿐 아니라 600년의 애환이 서려있는 보헤미안의 아우라가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 프라하성과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카를교는 성 안 네포무크 신부의 전설로 유명하다. 왕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해성사를 하고 이를 눈치챈 왕이 네포무크 신부를 블타강에 버렸고 신부를 기리기 위해 카를교 위에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 아래 동판 속 개를 만지면 프라하에 한 번 더 오게 되고, 네포무크 신부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



## 프라하의 매력포인트 5. 안토닌 드보르작

프라하를 영혼 속 깊이 사랑한 아티스트 드보르작. 스메타나와 함께 체코의 대표 작곡가이다. 드보르작의 곡은 대표작인 유모레스스크에서 엿볼 수 있듯이 투스텝 춤사위가 절로 나오는 경쾌한 비트가 특징. 천진난만하고 쾌활한 그의 성품이 음악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 소년처럼 중기 기관차를 사랑한 그가 말년에 프라하를 떠나 잠깐 뉴욕의 내셔널음악원 원장으로 갔던 것도 미국의 중기 기관차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는 어리광이 한몫 했었다고. 그래도 그곳에서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가 탄생했으니 미국행이 헛되지는 않았다. 드보르작의 음악은 아름답다거나 웅장한 것과는 다른 목직한 무언가가 있다. 체코 민족의 애환이 서린 한의 정서가 그의 음악에 묻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경쾌하고 멜로디컬한 선율 속에서도 애뜻함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아리랑과 비슷하다. 그의 음악을 감상하고 있으면 이야기가 있는 심상이 떠오르기에 클래식을 듣는다고보다 영화 OST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프라하에 간다면 드보르작의 대표곡인 '슬라브 무곡' 16곡을 반드시 다운받아 가길 권한다. 슬라브 무곡 op.46 no.1은 신시가지, op.72 no.2는 구시가지와 어우러져 듣는 내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 프라하의 야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현지인이 가르쳐준 비밀 스팟, 우예즈드 Ujezd 공원

블타바강의 레기교를 건너면 그 길 끝에 우예즈드 공원이 있다. 이 곳은 언덕이 꽤나 가파르기 때문에 공원 한쪽에 모노레일 같은 산악열차 승차장이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전망대에 가기 위해 산악열차의 두번째 스테이션에 위치한 페트르진 전망대를 찾아가는다. 하지만 현지인이 추천하는 스팟은 따로 있다. 바로 첫번째 스테이션인 네보즈작 Nebozizak. 아무도 내리지 않아 뿔뿔히더라도 이곳에서 내려 좁은 오솔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멋진 네보즈작 레스토랑이 나타난다. 아주 맛있는 각종 샐러드와 스테이크, 스프부터 빵쇼, 맥주, 에스프레소까지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 곳에 앉아 여유롭게 프라하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런 유용한 정보는 프라하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는 Sarah가 살짝 귀뜸해준 것.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수박 걸핍기식 랜드마크보다 현지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알짜 스팟을 꿰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초보여행자들의 고민, 어떻게 현지인과 친해질 수 있을까? 여행자들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신인류의 여행법, '카우치서핑'을 통해서라면 간단하다. 예를 들어 프라하에 살고 있는 호스트가 프라하를 여행하는 게스트를 자기 집에 묵게 하거나, 여행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만나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카우치서핑을 통하면 자연스럽다. 이 모든 것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라하의 호스트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또 다시 게스트가 된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카우치서핑을 통해 색다른 여행을 시도해보시길.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김은지 김중현 지음 / 이야기나무 / 15,000원

돈과 시간이 없어도 세계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여행법, 카우치서핑을 낱말이 파헤친 유일한 책. 카우치서퍼들의 생생한 후일담, 카우치서핑에 관한 모든 Q&A와 유용한 팁이 담겨있는 카우치서핑의 바이블이다.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여행 친구 **개그우먼 정경미 | 박지선 | 이희경 | 김영희**

# 낭만에도 웃음이 필요하다 개그콘서트 희극여배우들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에 특별한 그녀들이 땀다. 웃음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KBS 개그콘서트 희극여배우들(개그우먼 정경미, 박지선, 이희경, 김영희) 그녀들이 말하는 낭만과 사랑. 웃음 뒤에 숨겨진 그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Q 여행 가고 싶다면 누구랑 가고 싶어요?**

**지선씨는 남자친구랑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박지선** - 무례하시네요. 전 다음 번에 다른 주제일 때 불러주시겠어요.(일동 웃음) 저는 혼자 가는 것도 괜찮고, 어머니랑 여행을 가고 싶어요. 프라하 수도 관광 하고 싶습니다.

**이희경** - 저는 어머니와 하와이를 간 적이 있는데, 영화 같은 운명처럼 어떤 상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상대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여행사를 통해 왔더라고요. 일정상 같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재미있게 보냈죠. 웬지 저 남자도 저를 마음에 있는 것 같아 용기 내서 연락처 물어보고 한국에 와서 만남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각각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행지에서의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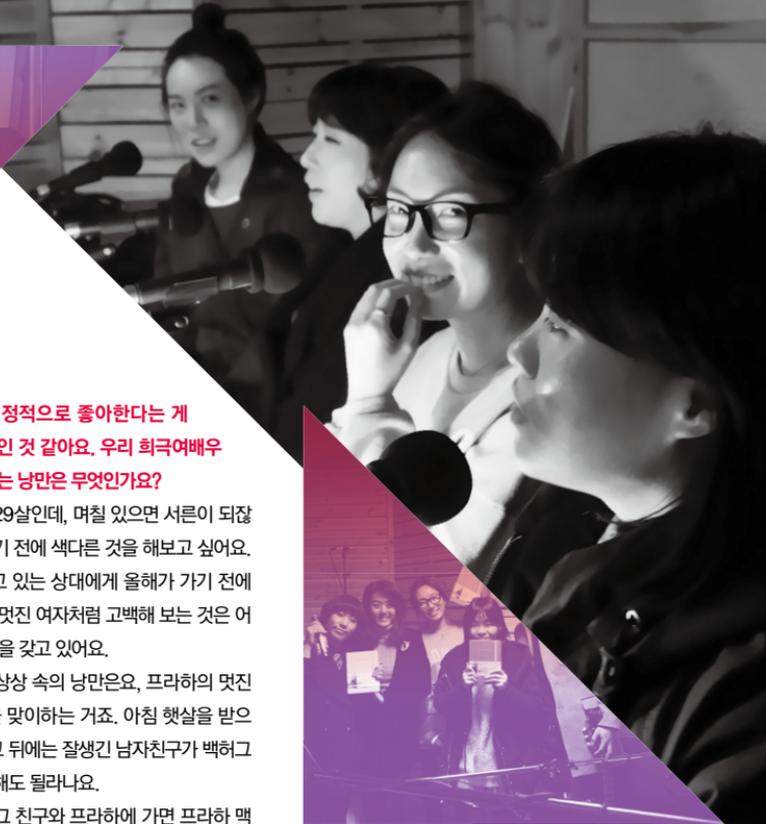
**박지선** - 근데 희경씨처럼 제가 어머니랑 여행을 갔는데,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사랑에 빠지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동 웃음)

**Q.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잊을 수 없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정경미** - 저는 제주도도 첫 발을 내디뎠을 때가 생생한데요. 바닷가에 갔는데 하늘과 땅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하늘이 마냥 높기만 했는데, 제주도 하늘은 땅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주도가 이런 곳인가 하면서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박지선** - 저도 섬으로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울릉도 여행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육지에서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갈 때 가족 세 명이 다 멀미를 예감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배를 탔어요. 결국은 배 바닥에 세 가족이 누워서 울릉도를 갔죠.(웃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항구 옆에 바다와 맞닿은 섬 산책로가 있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태초의 바다색을 보면서 멀미는 잊고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영희** - 제가 여행을 가본 데가 부산이랑 우도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우도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하하.



**Q.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요. 우리 희극여배우들이 생각하는 낭만은 무엇인가요?**

**이희경** - 지금 29살인데, 며칠 있으면 서른이 되잖아요. 서른이 되기 전에 색다른 것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용기 내서 한 번 멋진 여자처럼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경미** - 저의 상상 속의 낭만은요, 프라하의 멋진 호텔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켜고 뒤에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백허그를 하는 상상을 해도 될까요.

**김영희** - 저는 그 친구와 프라하에 가면 프라하 맥주를 마실 거예요. 술을 마시면 제가 예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일동 웃음)

**Q. 마지막으로 개그콘서트 코너 <희극여배우들>을 통해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김영희** - 저는... 아줌마가 맞습니다.

**박지선** - 저는... 못생겼습니다.

**정경미** - 저는... 요정이 맞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이희경** - 이런 식으로 모두 인정하면서 코너를 짧게, 3초만에 마무리 해보고 싶어요. (일동 웃음)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그콘서트 희극여배우들 4인방의 낭만과 사랑에 대한 솔직 담백한 대화는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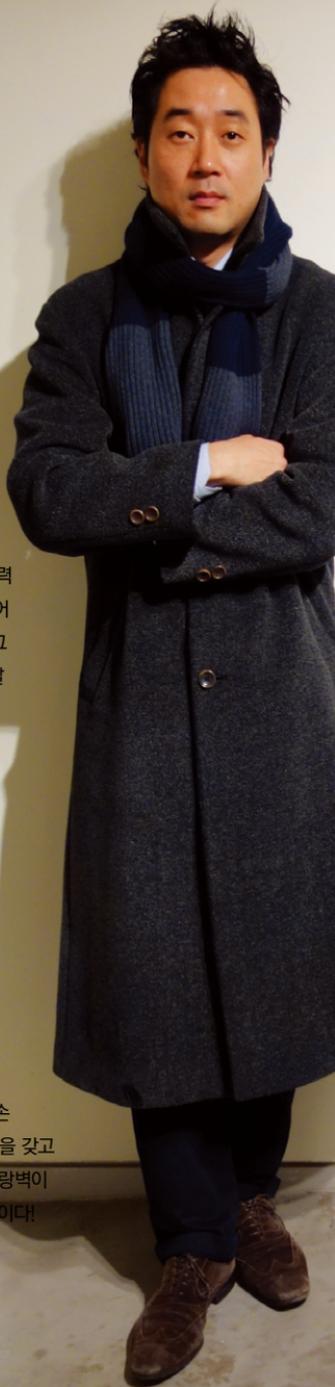
#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길손 김일송 주인이 아닌 길손으로 잠시 머물다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공연문화 전문지 신플레이빌 scene PLAYBILL의 김일송 편집장은 2003년 창간 이후 10년째 한 매체의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무실에 자기 책상이 없다. 머무는 곳에 개인적인 물건 따위 무엇 하나 늘어놓지 않는 성미 탓에 일터 어느 곳에도 그의 흔적이라고 없다. 물론 스스로 원해서다. 10년 편집장 이력과 내공을 바탕으로 이루고픈 꿈도 하나 없고, 남다른 주인정신도 없다. 그곳이 어디든 그저 잠시 손님으로 와 있는 까닭에, 세상 어디에도 행장을 풀지 않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언제든 어디로든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사람, 그에게겐 여행자의 냄새가 난다.

그런 그가 어떻게 10년째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물론 방랑벽이 도지면 떠나야 했기에 벌써 세 차례나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사장은 마음도 좋으시지~ 이제는 정착한대요.^^) 프라하로, 산티아고로, 발트에서 발칸까지 세상 곳곳을 걷고 또 걸었다. "여행을 할 때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편안하듯, 여행 역시 어디 한 군데 정 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는 성향 탓에 그는 여행도 주로 혼자 다닌다.

스스로를 '비주류 냉소적 낭만주의자'라고 부르는 그에게 딱 맞는, 운명적인 이름은 무엇일까? "제가 철자의 순서를 바꿔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애니그램 anagram 놀이를 가끔 하는데, 제 이름 일송 ilsong의 철자를 조금만 바꾸면 길손 gilson이 돼요. 최승자 시인의 '내 청춘의 영원한'이라는 시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시처럼 가끔씩 방랑벽이 도질 때면 여지없이 떠나야 하니, 길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에게 '길손이 딱이다! 김일송, 김일송을 빠르게 발음하면 역시 '길손'이 되니.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며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뒷골목만  
서성거렸다.

삶은  
대로가  
아닌  
골목에  
있었다.

© 김일송 · 뒷골목 · 크로아티아 스피리트 · 2011



여행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 여행을 떠날까? 언젠가 산티아고 길 800km를 25일 동안 걸었을 때 그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여행이 끝났을 때 자아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그는 자아를 찾지 못했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 함께 걸었던 모두가 환호할 때 혼자서 허무할 따름이었다고.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 힘이 빠지던 순간, 산티아고 길 이 여차피 버리는 길, 내려놓는 길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 마음이 가벼워졌단다.

여행에서도 인생에서도 별다른 욕심이 없는 그에게 이걸 못 해보고 죽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골목길을 돌아보는 것. 그가 걷는 골목길은 낭만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으면 좋겠다. 길손이 되든다.

“이런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 길손이 제안하는 무브꺼리 **5**

## 01 연극 <줄리에게 박수를>에서 좋아하는 대사 떠올리기

"저는 오늘부터 세상의 모든 어중간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 겁니다. 이름 없는 꽃은 정말 이름 없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이름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 그 꽃들도 분명 향기를 뿜고 벌 나비를 유혹했을 테니까요. 아직 제 이름을 찾지 못한 모든 꽃들의 향기가 오늘 하루 종일 코끝을 찔러댔습니다. 향기에 취해서 제일 먼저,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확인해 주고 있는 이 줄리에게.. 줄리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 02 영화 <카사블랑카>의 다양한 변주 즐기기

버티 히긴스 Bertie Higgins의 노래 'Casablanca'와 우디 앨런 Woody Allen의 영화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 Play it again, Sam, 구효서의 소설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 등 영화 카사블랑카의 다양한 변주를 좋아한다. 그리고 험프리 보가트가 그레이스 캐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대사를 언젠가는 꼭 누군가에게 해보고 싶다. "만일 클리블랜드 행 비행기가 뜰 때 당신이 그 친구 옆에 없다면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은 안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그때부터 나머지 인생은 후회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 03 책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 골씹어 보기

파졸리니, 가우디, 에릭 사티 등 17명의 마이너리티 그러나 불멸의 아티스트의 삶을 진하게 담아낸 박명옥 작가의 글쓰기를 좋아한다. 10년 동안 절필하고 집필했던 박명옥 작가의 다음 행보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 04 동네서점 대학로 <이음책방> 드나들기

참고서나 실용서를 파는 곳이 아니라, 인문학 책과 예술서적을 파는 곳이라 더 좋아한다. 손때 묻은 헌책을 만나는 기쁨도 크고, 영화를 봐도 동네 영화관에서 보고, 커피를 마셔도 동네카페에서 마시는 걸 좋아하는 취향이라 서점 역시 동네책방을 찾게 된다.

## 05 여행하고 사진 찍고 글쓰기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없이 꿈꾸어 보았다. 그러던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 르르니에, <섬>에서



010  
大紅杉木

MUSE

# 기억을 머금은 향기를 읽다

스토리텔러 김예니 — nabi@bombaram.net

Angel Food  
天使的食物

New Green  
Apple  
青蘋果

## 향기도서관 DEMETER 이야기

사람들은 기억과 추억을 주로 사진에 담는다. 하지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왠지 모를 부족함이 있다. 지친 여행의 하루 끝에 곁목을 헤매고 헤매다 간신히 찾은 작은 불빛, 작은 식당 한 칸의 따뜻한 온기,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치즈 맛이 뒤섞여 녹아있는 새로운 풍미, 깊은 바삭하면서 속은 쫄깃하게 구워진 베이컨 조각의 짭짤한 냄새,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까르보나라 파스타는 사진 한 장으로는 좀처럼 기억해내기가 힘들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그 기억이 시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아쉬운 일이 또 있을까? 우리는 쉽게 간과하곤 한다. 과거의 기억 즉 장소, 시간, 사물 등에 대해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시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의 온도와 향기라는 사실을.

프루스트 현상 Proust phenomenon이라는 것이 있다.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sup>1)</sup> (recherché du temps perdu)에서 주인공 마르셀이 흥차에 적신 마들렌의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온 데서 유래한 말이다. 냄새를 통해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을 일컫는 이 현상은 미국 노벨화학감각센터의 헤르츠 박사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사람들에게 사진과 냄새를 함께 제시한 뒤 사진만 보여준 그룹과 냄새만 맡게 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냄새만 맡은 사람들이 사진만 본 사람들보다 과거의 느낌을 훨씬 더 잘 기억해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氣味] 圖書館

Scent Library

향기는 시간을 구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이면서 모든 기억과 추억이 얽혀있는 이야기의 엑시스와 같다. 파트리트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에서도 이 세상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소녀들의 머리칼과 피부에 스며있는 향기의 엑시스 몇 방울을 정제하고 수집하는 편집증적인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리고 주인공 그르누이가 완성해낸 그 절대향기는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

‘향기 도서관’이라는 별명이 있는 향수 브랜드 ‘Demeter’를 알고 있는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몇몇 향수 멀티로드샵에 부분적으로 입점되어 있어 네모난 용기와 심플한 라벨이 눈에 익다. 해외에서는 향기 도서관 컨셉을 잘 살린 Demeter 전문 스토어가 많다. 그곳에서는 Demeter 향수의 진가가 더욱 드러난다. 수많은 서랍에 향기의 이름이 적혀있고 서랍 속 작은 유리병 안에는 향기 묻은 솜이 들어있어 다양하고 흥미로운 향기들을 시향해볼 수 있다. 구입을 원하는 향수는 두꺼운 하드커버 책처럼 생긴 상자에 넣어 포장해준다. 작은 향수병 하나지만 누군가에게는 두꺼운 책의 두께처럼 수많은 기억이 담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내가 향기로 기억하는 시간을 공유한 누군가를 위해 향기를 읽어보는 낭만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 Birthday Cake

생일케이크

아근 후 쓸쓸한 귀가길, 가족들 모두 잠든 불꺼진 집 식탁 위 쓸쓸하고 미지근한 케이크향기.

### Between the sheets

종이 사이

빛바랜 어느 한 권의 책 속, 나보다 젊은 시절 아빠가 남긴 메모지에서 나는 먼지 향기.

### Laundromat

건조세탁기

일찍 일어난 토요일. 거실에 늘어놓은 건조된 빨래에서 피어나는 부드러운 살냄새.

### Spring Break

볼방학

봄이 오는 길목, 지방 전통차역 플랫폼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 뒤섞여 있는 설렘의 향기.

### Rain

비

첫 데이트 갑자기 내리는 비. 그가 벗어 함께 덮어준 체크남방 속으로 스며드는 흙냄새 섞인 비의 향기.

### Salt Air

짠 공기

밤 늦은 전화 통화, 친구와 충동적으로 만나 떠난 강릉 바다. 파도칠 때마다 밀려오는 차가운 공기 냄새.

### Pruning Shears

정원 가위

잠미 줄기를 가위로 비스듬하게 자르는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튀어오르는 향긋하고 촉촉한 풀꽃냄새.

### Clean Window

깨끗할 창문

쁘드득 깨끗한 창문에 새어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 유리 표면에서 간질거리는 아지랑이가 속이 사늘한 새 통배의 향기.

몇몇 호기심을 끄는 향기 이름을 발견하고 서랍을 열어 향을 음미하다 보면 어느샌가 눈을 감고 향기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이 향수들의 향기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을까?

▶ 이 스토리는 demeter 향수의 공식적인 스토리와 별개로 창작된 것임을 밝힙니다.

## 이야기나무 책 소개

---



###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김병록 지음 | 352쪽 | 15,000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간행물 수상작  
충북 괴산 미루마을에 책마을을 일구는 어린이 도서관장  
부부가 지도에도 없는 유럽의 책공간을 찾아 떠난  
여행과 책에 관한 기록  
북 러버, 북 원더러, 북 헌터를 위한 애독서



### 『PRIDE 현대카드가 일하는 방식 50』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 · 현대커머셜 지음 | 328쪽 | 13,000원

경제경영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현대카드와 정태영 사장이 직접 밝힌 남다른 성공의 비밀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꾼 10년의 노하우 공개  
경영자, 직장인, 기업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들의 필독서



###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세상이 내 집이다, 모두가 내 친구다!  
김은지 김종현 지음 | 280쪽 | 15,000원

카우치서핑 국내 공식 첫 가이드 북([www.couchsurfing.org](http://www.couchsurfing.org))  
인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없이  
집을 공유하고, 명함보다 서로의 스토리를 교환하는  
신인류의 혁신적인 여행법, 카우치서핑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



### 『이야기 테라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힐링 스토리 24  
이시스 지음 | 이장섭 그림 | 380쪽 | 17,000원

이야기가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6가지 테마의 24가지 힐링스토리  
영성가들과 독자들이 극찬한 이야기 치유 실천 가이드